

연세대학교교회 2018. 7. 1.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신앙의 네 단계 (삼하 1:17-27, 고후 8:7-15, 막 5:25-34)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대학교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서정과인 마가복음에는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하혈로 인해서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힘겹게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하혈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보았고, 하혈하는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혈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도 힘겨웠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당한 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힘겨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여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차단되었고, 친구들과 우정을 이어가는 것이 차단되었으며,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차단되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말씀은 여인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인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상황과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의라고 말하는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그곳이 어디라도 개의치 않고 가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환대 가운데 무료로 치료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의사를 찾는 경비, 의사를 찾아가는 경비, 의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치료경비 등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력이 없었으니, 여인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어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은 마치 천재라도 되는 것처럼 조기교육 프로그램 아래서 바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잘 가르친다는 선생이나 학원을 찾아서 순례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별 취미도 없는 공부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드디어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자신의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좋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무한경쟁 속에서 한시도 편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연애나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 말고는 참다운 안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미건조한 삶,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종종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열 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은 예수와 상관없던 시절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좋아지는 것이 없었고,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의 서두를 보면 혈루증 여인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로 인해서 혈루증의 질병에서 낮게 되었고, 차단된 공동체의 삶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희망에 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혈루증 여인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녀처럼 우리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인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절 전반부를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할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때까지 여인이 주로 들으려고 했던 것은 명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치료할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고, 다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이야기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막 1:15)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예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도 있고, 기분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죽음을 조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푸근한 평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즐겁게 들습니까?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참된 진리가 있고, 예수에게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이 있고,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한 진리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자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인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다보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예수가 귀신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고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치료했고, 나병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가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안

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 할 때, 바람을 꾸짖어 바다조차 잠잠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예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라면 자신을 낫게 하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다는 것,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주체로 삼았던 삶에서 예수를 자기 삶의 주체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삶에서 나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끄럽게 살아온 나의 죄된 삶을 떨쳐버리고 예수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로 살고 있지만, 예수께서 나를 풍성하게 살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여인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27절 후반부를 보면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여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로 인해 여인은 예수께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혈루증 환자라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만일 여인이 율법의 금지사항을 어긴 사실이 발각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에 무리에 의한 장벽을 뚫고,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무리와 같은 교인이 아닌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과 예수를 직접 만나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분 역시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이 우리를 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를 믿음의 주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관계이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로 직접 보는 것처럼, 명확한 성숙한 신앙관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여인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34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를 만나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하혈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예상 밖의 경험을 하고나서 두려웠지만,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혈루증이 나았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만일 혈루증 여인의 증언이 없었다면,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말씀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듣고, 믿고, 만나고, 증언한 그 녀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고백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귀신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도 예수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삶으로써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고난의 삶,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직접 만나 인격적인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구원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네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된 말씀으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